

고흥,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거점 도약 ‘순항’

관련 기업·연구기관·투자기관 등과 활성화 방안 모색

공영민 군수 “산·학·연 기관과 실질적 협력 모델 확대”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뒀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남도·고흥군이 공동 주관한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열린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투자설명회다.

우주항공·드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항공우주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예정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캠퍼스’ 내에 항우연 연구 성과물인 실험기체 전시 등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확고히 했다.

아울러 고흥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병행 개최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조성하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특히 전남도의 투자 제안에 이어 마린로보틱스(대표 박진향)의 ‘유인성 물류 배송 드론실증 성공사례’, 다온아이엔씨(대표 양찬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군집 비행 드론쇼’ 등 드론 전문기업의 우수 사례가 공유됐으며, 기업과 지자체의 산업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발표에서는 정운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의 ‘민간 우주기업 발사 활성화 방안’, 김용규 순천대학교 교수의 ‘고흥군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이문석 호정슬루션 대표의 ‘전남 드론기업 해외 진출사례 및 전략’, 김덕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센터장의 ‘고흥 항공센터 도심항공 교통(UAM) 인프라 소개’ 등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흥 우주항공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

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광주·전라권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는 군의 미래 비전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확대해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과 2026년 준공 예정인 무인항공 영농특화단지의 입주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지를 통해 우주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군은 최근 광주 서구에 위치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전남도·고흥군이 공동 주관한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겨울 추억 ‘찰칵’ 내년 1월 11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2025 함평겨울빛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화려한 조명 경관을 배경으로 겨울 추억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함평군

곡성,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주민 참여형 의료기반 확충 모델 ‘소아과’ 전국적 주목

곡성군은 최근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을 통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주민 참여와 민간 기부를 통해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뛰어난 혁신성과 확산 가능성이 인정받았다.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은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소멸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곡성군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 혁신 시책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기부자·지역사회·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인프라 조성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진료 기관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역 민간 의료기관 협력,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2024년 육과보건지소 내 출장 진료를 시작으로 곡성군보건의료원 1층에 상시 진료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진료 개시 후 1년여 만에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필수요한 외지 원정 진료가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곡성군은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하는 소아과’, ‘아동 건강 아카데미’ 등 부모 대

상 맞춤형 의료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진행된 강의와 설문조사는 지역 의료정책의 수요 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진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한 군민의 염원과 참여가 만든 값진 결과다”며 “이를 계기로 더 촘촘한 의료·돌봄 인프라를 마련해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담양,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강화

5·18민주의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신설

담양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참전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월 5만원)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보훈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6만원과 별도로 담양군 5·18민주의예수당(월 4만원)을 신설, 내년부터 지급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담양군의 중요한 책무다”며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 건립 등 지역 내 보훈 기반 확충과 보훈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wnnews@gwangnam.co.kr



담양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확대한다.

나주, 내년 노인 일자리 4710명 모집…최대 규모

19일까지 접수…역량 활용·공동체사업·취업지원 등

나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지역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6개 사업단에서 참여자 4710명을 모집한다.

2년 새 1625명이 늘어난 최대 모집 규모로 오는 19일까지 각 읍·면·동과 사업수행기관에서 4개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내년도 일자리는 전년 대비 사업량 685명 증가, 사업비 36억8000만원이 늘어 총 4710명에 207억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이 투입된다.

사업은 읍면동,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 주관의 직접 수행 16개 사업단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원노인복지회에서 50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유형은 지역사회 환경개선, 공공시설·관리지원 등 노인공익활동형(3560명), 취약계층 서비스, 보육시설 지

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823명), 카페, 반찬·두부 제조 등 공동체 사업단(212명), 경비관리원, 카페 연계 등 취업지원(115명)으로 총 4개 유형이다.

유형별로 공익 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지원받으며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인역량활용형은 참여자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을 토대로 월 6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활동비 76만1000원을 지급하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나주시 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공동체 사업단은 근로 보수 및 제작 및 판매를 통한 수익 분배로 인기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이다.

취업 지원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시급(11만 32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나주시 민이 참여할 수 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 분청사 별관 증축 위한 임시청사 개청

8개 부서 이전·재배치…업무 공백·시민 불편 최소화

여수시는 분청사 별관 증축 공사에 따라 웅천 임시청사를 개청하고 시청 내 8개 부서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재배치한다.

시는 분청사 별관 증축 공사에 앞서 웅천동 1809-1번지 일원에 연면적 965.57㎡ 규모의 지상 1층 임시청사를 신축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청사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이전되는 부서는 청년인구정책관, 안전총괄과, 신산업에너지과, 여성가족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등 총 8개 부서다.

신산업에너지과와 여성가족과는 13일 국동임시별관 4층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는 새

롭게 개청하는 웅천 소재의 임시청사로 20~21일 이전을 마무리하고 22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청년인구정책관은 20일 허재영정책의과 건물 2층으로 이전하며, 안전총괄과는 같은 날 분청사 2층으로 재배치된다.

건축과는 21일 구 보건소 2층으로 이전해 22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웅천 임시청사에는 시전동 현장민원실도 함께 배치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임시청사 건립은 분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첫 단계이며 이번 부서 이전은 공간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 없이 이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윤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굿잡광양’ 기업회원 대상 매돌이 선물 이벤트

시, 18일까지 기업회원 가입 후 인증 게시글 작성시 추천

광양시는 관내 모든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굿잡광양’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회원 대상 이벤트 ‘굿잡광양 사장님, 매돌이가 선물 드려요!’를 추진한다.

시는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체가 굿잡광양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입인증 게시글’을 작성하면, 추천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굿잡광양 누리집(job.gwangyang.go.kr)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기업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관리자 승인 후 공지사항·문의 메뉴 내 ‘이벤트란’에 인증 게시글을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총 60개 업체를 추천해 22일 굿잡광양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하며, 당첨 기업에는 매돌이 장패드 또는 매돌이 키링 중 1종이 제공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민의 특화된 일자리 플랫폼인 ‘굿잡광양’을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